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과 문화 유산 보전

이 만 열*

목 차

- | | |
|-------------------------|--|
| I. 지리산 선교사 유적-노고단과 왕시루봉 | IV. 왕시루봉 건축·문화재적 가치 |
| II. 왕시루봉 유적이 세워진 경위 | V. 맺는말: 왕시루봉 선교 유적은 근대문화재로 등록·보존되어야 한다 |
| III. 왕시루봉과 이념을 맺은 선교사들 | |

I. 지리산 선교사 유적-노고단과 왕시루봉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에는 선교사 관련 유적이 남아 있다. 노고단에는 허물어진 석조 예배당 유적 일부가 남아 있고, 왕시루봉에도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건물들이 남아 있다. 노고단 유적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것이고 왕시루봉의 것은 해방 후 일정 기간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남긴 유적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순사건’(‘여수·순천10.19사건’)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좌익’ 빨치산의 근거지가 된 지리산은 10여 년간 그 소탕전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그 때 노고단 수양관 건물들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왕시루봉 유적은 해방 후 특히 6.25 전후한 시기에 노고단 유적이 훼파되자 새로 세운 건물들이다.

II. 왕시루봉 유적이 세워진 경위

해방 전에 본국으로 돌아갔던 일부 선교사들이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중 전쟁 직후 귀환한 린튼(Hugh Linton, 인휴)과 하퍼(J. Hopper, 조요셉) 선교사

* 숙명여대 명예교수 / 前)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논문접수일 : 2020. 5. 3., 논문심사일 : 2020. 5. 11., 게재확정일 : 2020. 6. 10.

는 해방 전에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노고단 수양관이 복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다른 장소에 수양관 재건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들은 1961년 봄부터 구례군청과 토지면장, 경찰서장 등 지역 관리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리산 일대를 탐색, 새로운 수양관 후보지를 찾아 나섰다. 그 결과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 산 106번지에 위치한 왕시루봉을 점지하게 되었다. 린튼과 하퍼는 왕시루봉 일대가 ‘국유지’인 줄 알았지만 1961년 여름부터 부지를 조성했다. 1962년 봄 왕시루봉 일대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연습림(39호)으로 되어 있음을 인지한 린튼과 하퍼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과 교섭하여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1962년 7월 11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장 김호식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으로 서울대학교와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는 공동 소유, 공동 관리하는 형태로 왕시루봉 수양관이 ‘합법’성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노고단에서 사라진 지리산 수양관은 왕시루봉으로 옮겨 ‘부활’되었다. 그러나 노고단 수양관에 비하면 규모나 시설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왕시루봉 수양관은 그 뒤 10년 넘게 선교사 휴양 기관으로 활용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변화가 일어났다. 이 때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수양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주한선교사 수가 격감하게 되어 수양관 이용자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게다가 수양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던 린튼(인후)이 1984년 교통사고로 별세하게 되자 선교부는 물론 한국 교계의 무관심 속에 수양관이 쇠락하게 되었다.

2003년 3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왕시루봉 수양관 건물이 “사용 목적(난치병 환자 치료 및 요양)에 위배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04년 2월 29일 이후 국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를 하지 않을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왕시루봉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도 밝혔다. 여기에다 노고단에 남아 있는 옛 강당 건물 잔해를 철거하라는 지역 시민단체의 요구까지 겹쳐 두 곳의 지리산 수양관 유적은 모두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고단과 왕시루봉 수양관 유적지 보존과 복구를 위한 대책을 기독교계에 서는 모색하게 되었다.

III. 왕시루봉과 인연을 맺은 선교사들

왕시루봉에는 12채의 건물이 있다. 교회당 건물을 비롯하여 Charlott Bell Linton

[William A. Linton(인돈) 부인] 주택, Joseph Baron Hopper(조요셉) 주택, James Hazeldine(한성진) 주택, Peter R.M.Pattison(배도선) 주택, John Venable Moore(모요한) 주택, John Brown(변조은) 주택, Stanley Craig Topple(도성래) 주택, Theodore Hard(하도레) 주택, Robert Kitchen Robinson(로빈슨) 주택, Hugh Macintyre & Lois F. Linton(인휴·인애자) 주택 등 10채의 개인주택과, 창고까지 합쳐 총 12채가 있다.

이곳에 개인 주택 등을 남긴 이들은 모두 선교사로서 해방 전후에 한국에서 활동한 이들이다. Charlott Bell Linton은 남장로회의 초기 한국선교사 배유지(Eugene Bell) 선교사의 딸이며, 뒷날 대전대학(현 한남대학)을 설립, 초대 학장을 역임한 William A. Linton(인돈)의 부인이다. 그의 남편 인돈이 1960년에 돌아간 후에 아들 Hugh M. Linton(인휴)와 함께 이곳에 휴양소를 정했던 것 같다. Hugh M. Linton(인휴)는 노르웨이 기금을 한국에 들여와 결핵요양원을 설립하기도 했고, 여름철에는 왕시루봉 오두막집에서 어린 6남매를 키웠는데 그가 거주하던 오두막집은 일본의 갓쇼즈쿠리 건축 양식으로 건축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도성래(Stanley Craig Topple)는 한센병 환자를 위해 평생을 몸 바친 선교사로 여수 애양원 원장을 역임했다. 변조은(John Brown)은 호주 선교사로 한국의 가축 개량과 농촌 지원을 위해 노력했으며, 1966년에는 호주로부터 대형 흰 돼지와 염소들을 들여와 번식과 분배를 지도했다.

배도선(Peter R. M. Pattison)은 영국의 명문 의과대학 출신으로 부유한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료 선교사로 마산에서 결핵 치료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누가회를 탄생시켰다. 그의 부인은 한국의 불우한 여성을 위해 「은혜의 집」과 여성 구제에 헌신 봉사했다.

하도레(Theodore Hard)는 고신대학교 교수와 도서관장을 역임하며 신학 교육과 사회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분이다. 그는 양서보급에 앞장선 공로자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모요한(John Venable Moore) 선교사와 로빈슨(R.K. Robinson) 선교사가 있는데 이들 또한 6.25를 전후한 시기에 한국에 와서 선교와 한국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들이다.

이들 선교사들의 국적은 대부분 미국이었으나 영국과 호주 국적을 가진 이도 있었고 가족 중에는 노르웨이인도 있었다. 이들은 선교 사역 중 풍토병을 극복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지리산 왕시루봉에 일종의 수양관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곳이 단순한 휴식처는 아니었다. 과거 노고단이 성경 번역의 장소로 활용되었듯이 왕시루봉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봉사를 위한 재충전 공간이자 에큐메니

칼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선교사 유적들이 서울을 비롯한 도시에 자리잡고 있다. 거기에 비해 왕시루봉 유적은 도심을 떠나 산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왕시루봉 유적은 선교사들이 직접 지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거니와 비록 12채 밖에 되지 않는 이 공간들이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들의 독특한 양식을 재현함으로써 건축학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IV. 왕시루봉 건축·문화재적 가치

왕시루봉 유적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그 건축,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해 왔다. 순천대의 남호현 교수(문화재청 문화위원)는 왕시루봉 유적은 인간과 자연이 교섭하여 이룬 생태적 통섭 환경을 이룬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남대 건축학부의 천득염 교수(전남지역 문화위원)도 서양 선교사들의 주거 건축일지라도 한국의 전통적 공간 배치와 건축구조를 채용했다점을 지적했다. 천 교수는 또한 영국과 일본의 농촌주택 양식 및 노르웨이식 건축양식 그리고 북미식 오두막 양식을 도입한 점도 지적했다. 이는 12채 밖에 되지 않는 이 건물집단에 세계성의 조화를 볼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왕시루봉 유적에서 역사 문화 종교적 가치 뿐만 아니라 건축적인 세계성과 그 조화도 엿볼 수 있다.

근대건축물 전문조사기관인 (사)도코모코리아는 지리산 선교유적지와 왕시루봉 수양관을 조사하고 난 뒤 발행한 62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종교사와 현대사, 관광사적 의미를 고루 갖춘 지리산 선교유적지는 근대문화 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밝혔는데, 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

1. 지리산 노고단의 미남장로회 수양관 건축의 유적은 한국 근대사와 근대 선교사의 기념적 건축유적으로 조속한 보존조치가 필요하다.
2. 왕시루봉 선교사 휴양관 마을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건축물에서 그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건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재적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1) (사)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리산 선교유적지』 (2019) p.50.

- 1) 배도선(Peter R.M.Pattison) 가옥은 영국인 선교사에 의해 도입된 건축물로 영국의 띠집 농가주택(Thatcher House)의 양식과 기술을 지니고 있다.
 - 2) 인휴(Rev. Hugh M. Linton) 가옥은 일본 농가의 갓쇼즈쿠리 가야부키 기술과 양식이 도입된 건축물이다.
 - 3) 도성래(Dr. Stan Topple) 가옥은 노르웨이인 그의 부인과 자녀를 위하여 노르웨이 산악 건축형식을 도입하여 지은 건축물로 그 희귀성과 건축적 가치가 매우 크다.
 - 4) A-Tent라고 불리는 샤롯데 벨 린튼(Charlott Bell Linton) 가옥은 영국의 중세 목조주택이 발전한 북미 뉴잉글랜드 지방의 캐빈이 현대적으로 진화한 1950-60년대의 A-Frame을 도입한 건축물로 그 건축양식적 가치가 크다.
 - 5) 왕시루봉 선교사 휴양관의 다른 건축물도 이 마을을 이루는 구성요소로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마을구성을 저해하는 어떤 훼손도 그 가치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재의 마을 구성은 현재의 그대로 보존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3. 이 밖에도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은 그 마을 구성과 조성에서 인간과 자연이 교섭하여 이룬 생태적 통섭 환경을 이룬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한국 개신교 선교역사에서 선교사 휴양지는 현재 남은 것이 거의 없다. 해방 전에는 황해도 소래와 함경남도 원산 및 지리산 노고단에 선교사 휴양지가 있었으나, 분단 이후에는 소래 및 원산의 것이 없어졌고, 다만 1960년대 이후 지리산 노고단을 이어 왕시루봉이 휴양지로서 새롭게 형성되었다. 과거 선교거점(Mission Station)이었던 곳에는 아직도 선교 유적과 선교사들의 무덤 등이 있으나 선교 거점 외에는 지리산 왕시루봉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도 왕시루봉 유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과거 선교거점에 남아있던 도시의 선교유적들이 어느 특정 교단이나 단체들에 소속된 데 비해서 왕시루봉의 것은 특정 국가나 특정 선교단체를 넘어서서 왕시루봉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교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V. 문화재 등록제도와 기독교 문화유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 보존문제는 단순히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문화한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 정책은 과거 전근대문화유산 보존에 주력해 왔지만 최근에 이르러 근대문화유산 보존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종래 전근대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 지정제도를 고수해 오던 정부는 근대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부의 문화재보존정책과 관련, 전근대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정책과 최근에는 근대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등록’하는 제도 등 두가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지정문화재’ 제도와 ‘등록문화재’ 제도다.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등)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등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제도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개인의 재산권 등에 제약이 가해지고, ‘지정문화재’ 때문에 그 주변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기에 비해 ‘등록문화재’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문화재로 ‘등록’해 두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문화재로 ‘등록’한 분이나 그 주변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등록문화재’로는 주로 근대문화재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대문화유산 중 문화재로 보존하려는 것으로,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이르고 그렇다고 방치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 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에 속하는 것들은 주로 1860년대 한국의 근대시기부터 1950-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형성된 문화재들을 말한다. 이들 문화재는 토목·건축물과 영화필름, 간이역사(簡易驛舍), 등대, 염전, 돌담, 특수한 거주지 등과 앞으로는 공동묘지도 여기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근대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하여 보존하려고 노력한 결과 몇 년 사이에 수백건이 넘는 근대문화유산이 ‘등록문화재’로 신청, 보존의 대상이 되었다. 등록제도에서 강제성이 없는데도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보존할 문화유산대상에 오르게 된 것은 등록대상이 주로 공공기관의 소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민의 문화의식이 상승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개인의 소유의 것도 자진하여 문화재로 등록, 보존하려는 열의를 보이려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문화의식의 향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은, 다른 개신교 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봐서 근대에 형성된 문화재에 속한다. 천주교의 경우, 1860년대 이전의 문화유산도 있으나 개신교의 경우는 모두 그 이후의 것이다.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는 개신교 문화유적은 대부분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었다. 간혹 시골교회 건물 등이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선교거점에 설립된 교회 학교 병원 및 무덤을 포함한 선교사 유적들이다. 그렇더라도 개신교의 ‘등록문화재’는 숫적인 면에서도 초라한 편이다.

개신교 문화재가 많지 않은 것은 단순히 일천한 역사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다. 오히려 한국 개신교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교회당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개신교인들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는 듯하다. 최근 보존가치가 있는 예배당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된다. 교인증가를 감당하기 힘들다든가 건물이 현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옛 건물을 허물어 버릴 때, 우리는 그 옛 건물과 함께 선대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전통마저 헐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 안타까움 또한 금할 수 없다. 이게 한국 개신교인의 역사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또 하나, 한국 개신교인들은 전통과 우상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동일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를 본다. 전통을 우상시하는 경향은 옛것을 배척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각 민족에게 개성적인 문화를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전통 문화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음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기독교 신앙인은 전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전통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 ‘왕시루봉’의 건축물들도 여러 나라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선교사들이 건축·보존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문화재로 보존해야 한다.

VI. 맺는 말: 왕시루봉 선교 유적은 근대문화재로 등록·보존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펴 왔다.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정책과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개신교에서 남긴 문화재는 대부분 근대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의 대상이 되어 있다.

지리산의 선교사 유적들은, 해방 전에는 노고단을 중심으로 휴양과 성경번역 및 에큐메니컬 활동에 활용되었지만, 해방 후에는 왕시루봉을 중심으로 휴양과 에큐메니컬 활동을 위해 활용되었다. 특히 풍토병 극복과 휴양을 위해 지리산 왕시루봉 휴양지는 그 독특한 사명을 감당해 왔다. 현재 남아 있는 왕시루봉의 유적은 60여년 남긴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적, 건축학적, 종교적 가치가 높다. 문화한국을 위해서는 문화재 복원도 중요하지만 소멸되어 가고 있는 문화재를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왕시루봉 선교 유적지는 해방 후 한국을 찾은 선교사들이 선교와 교육, 일반의료와 의료교육, 농업과 목축의 근대화, 고아와 과부, 전쟁에서 희생된 여성의 재활 사업, 서양의 근대 양서 보급 그리고 한센병 치료 등 여러 가지 방면에 종사하면서, 일제 식민지의 고통과 한국전쟁의 후유증을 극복,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다 피로해진 심신을 재충전하는 곳이었다. 그곳에 휴식의 공간을 마련한 선교사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모여들어 왕시루봉이라는 불과 300여 미터 거리의 공간에 12채의 건물을 조성, 당시 전쟁으로 피폐해진 산간에서 작은 평화의 지구촌을 형성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왕시루봉 휴양지는 ‘화해’라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 전란 전후의 피비린내나는 전투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념적 갈등과 투쟁은 10여년 이상 계속되었다. 갈등과 투쟁의 상징처럼 되어 있던 그 현장에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려고 온 선교사의 집단 휴양지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더구나 70년 이상 분단과 투쟁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랑과 평화를 전하기 위해 돌아온 선교사들의 집단 휴양지가 조성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와 책무가 있지 않을까. 문화재 당국이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근대문화재 등록에는 건축물은 물론이고 유적(遺址) 및 건물 잔해도 문화재로 등록한 예가 있다. 왕시루봉에는 서양 여러 나라의 건축양식을 본받아 지은 12채 목조 건물이 있는데 이들 건축물들이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이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문제삼을 수 있지만, 학술연구·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²⁾는 그 존속이 인정되고 있다. 설사 문

화재가 아니더라도, ‘자연공원법’ 제 18조 ②항 1의 ‘마’항³⁾에는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및 재축’은 인정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왕시루봉 선교사 수양관은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62년경의 건축물로서 이미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재를 적극 보존하기 위한 주체가 있어야 하고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한 의지와 구상이 있어야 한다. 다행히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의 보존과 등록을 위해 기독교계가 범교단적이고 초교파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들은 이를 위해 몇 차례의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는가 하면, 왕시루봉 건축물의 건축학적·종교적 의미를 조사하는 일에도 노력해 왔다. 그들은 지리산의 기독교 유적을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한정된 틀에서 이해하지 않고 선교사를 통해 수용된 ‘서양 문화’의 중요한 유적지요 그 좁은 공간에서 세계와 접합하는 중요한 문화 공간으로 이해해 왔던 것이다. 그 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범교단적인 ‘사단법인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이라는 단체를 초교파적으로 설립(2007)하여 이 세계사적 문화유산을 보존·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데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자연공원법, 제 18조 ②항 1의 가.

3) 자연공원법, 제 18조 ②항 1의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재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층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